이상돈의 '바른 소리'



안철수 의원의 새로운 도전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새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창당 작업을 도중에 접고 민주당과 합당을 한 과거가 있는 안 의원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안 의원이 신당 을 만들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하고 탈당 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런 문 제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안 의원이 만들 신당이 어느 정 도의 지지를 받을 것이며 총선에 나갈 수 있는 좋은 인물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 가에 있다. 신당의 성공 여부는 '새 정치' 이미지에 부합하는 정치 신인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창당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 되어서 안 의원이 이끄는 신당이 내년 총 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한다면 일 단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종필 전 총리가 만들었던 자 민련, 이회창 전 총리가 만들었던 선진당 의 결말에서 보듯이 소선구제하에서 제3 당이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김종필 전 총리와 이회창 전 총리는 충청 출신으로 이렇다 할 대권 주자가 없었던 충청도 민 심을 기반으로 자민련과 선진당을 만들

반면에 안 의원은 호남에서의 새정치 연합과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호감에 기 반을 두고 정당을 발족시키는 것이니 지 역 기반은 취약한 편이다. 한국 정당이 지역 기반을 무시할 수 없음은 엄연한 현 실이기에 이러한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 니다.

안 의원이 '새 정치'라는 새로운 가치를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김종필 전 총리나 이회창 전 총리가 시도했던 정당 보다는 좋은 명분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안 의원은 자신이 내세우 고 있는 '새 정치'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 에 부응하는 행보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도 정치는 원래 '이상 반, 현실 반'임을 도 외시해서는 안 된다. 안 의원이 지금까지 돌고 도는 행보를 하게 된 근본 이유는 정 치 현실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안 의원은 혹시 자신에게 어떤 한 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성찰을 해 야만 작은 성공이나마 기약할 수 있다고 본다. 안 의원은 한때 '안철수 현상'이라 고 불릴 정도로 정치개혁을 향한 대중의

열망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다. 안 의원 주변에 이름 석 자로 알 만한 학식과 소신 을 갖고 있던 교수들이 모였던 것도 모두 그 같은 대중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 다.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안 의 원은 기존 정당의 구태를 비난하기에 앞 서 자신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 에 부응하지 못한 부족함을 되돌아보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안 의원은 호남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는 이유를 직 시해야 한다. 오늘날 호남의 정서를 아전 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한다면 자신에 대 한 지지가 하루아침에 꺼져버릴 수 있음 도 알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호남의 여론 주도층이 민심과 정서를 올바르게 이끌고 또 표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 조하고자 한다.

호남의 여론 주도층이 적극적으로 의 견을 개진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면 정치인들이 저마다 '호남 민심'을 대변한다면서 나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 고, 선거를 통해 비로소 민심을 파악하는 모습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호남 민심을 떠나서는 동력을 얻지

못할 상황이라면 안 의원은 호남에서부 터 '새 정치'를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 다. 민심을 존중하고 이념과 지역을 내 세운 할거주의와 패권주의를 거부하면 서 한국 정치를 바꾸어 나가는 실험을 호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다. 쉽 지 않은 일이이지만 새로운 정치 실험 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 정이라고 하겠다.

안 의원이 이끌게 될 신당이 보다 큰 역 할을 하기 위해선 안 의원 홀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끌고 가는 형태로는 한계가 있 음도 알았으면 한다. 새정치연합은 문재 인 체제로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 만 현역 의원 평가가 끝나갈 즈음에는 또 다시 출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시점까지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새정치 연합을 떠날 것이며, 그 중 몇 명이나 안 의원과 함께 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 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한 국정 운영에 염증을 느낀 무당파 및 온건 보수층 유권 자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다른 정당에서는 볼 수 없는 정치 콘텐츠 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중앙대 명예교수〉

社 說

상가 확대 어등산 개발 특혜 시비 없어야

10년째 답보 상태인 광주 어등산 관 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 이 제시됐다. 기존의 틀을 크게 바꿔 대 규모 쇼핑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개발 취지에 맞춰 공공성 확보 와 특혜 시비의 사전 차단이 새로운 과 제로 떠올랐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8개월에 걸쳐 실시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는 민간 개발을 토대로 숙박시설 축소와 상가 시설 확대로 집약된다. 기존 14만5000 여㎡ 호텔 부지를 1만6000여㎡로 10분 1로 줄이고, 대신 판매시설은 2만4000 여㎡에서 4배 이상 늘린 13만여㎡로 대폭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가시설 확충 방안은 최근 광 주의 대형 쇼핑몰 추진과 관련해 주목된 다. 지역 유통업계가 호남고속철 1단계 개통을 계기로 어등산 관광단지와 광주 송정역 인근을 후보지로 예의 주시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검토안이기 때문이 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미 특정 대

기업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어등산 개발은 군의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주변(273만 6000m²)에 시민을 위한 유원지·골프 장·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공익사업 이다. 가장 큰 목표는 시민들이 쉽게 찾 을 수 있는 종합 위락공간을 만드는 것 이었다. 하지만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현재는 27홀 규모의 민간 골프장 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계획의 골격을 시의성 있게 변경해야 한다는 데는 일 리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효율만 강 조하다 보면 공공성이 침해될 소지가 많다. 또 특정 기업에 개발이익이 집중 되는 결과가 빚어진다면 사업의 명분 도 크게 빛이 바래게 된다.

광주시는 제시된 개발 방향이 적합한 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사회의 동 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추진 과 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세세하게 밝히고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광주 지역 대학 취업률 왜 매년 꼴찌인가

광주 지역 고등교육 기관(대학·대학 원 등)의 취업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 해 다소 증가했지만 만년 하위권을 벗 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히 이 지역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14년 고등 교육 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광주 지역 고등교육 기관 취업률은 65. 3%로, 대구·충북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고등교육 기관 은 전문대와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 학, 기능대학, 일반대학원 등을 의미 한다.

이 통계에 따르면 전국 고등교육 기 관 전체 취업률은 67.0%로 울산이 72. 9%로 가장 높았고 인천(70.3%), 대전 (68.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 고 등교육 기관 취업률의 경우 전년도(64. 1%)보다 1.2%포인트 증가했고 전남의 취업률은 66.9%로 전년도(68.1%)보다 1.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4년제 대학 취업률(60.8%) 도 대구(60.5%), 경남(60.7%) 다음으 로 낮았고 전국 취업률(64.5%)에도 크 게 못 미쳤다. 반면 광주의 전문대 취업 률은 68.2%로 전국 취업률(67.8%)보 다 다소 높았다.

사실 지역 대학의 낮은 취업률은 새 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수년째 지속돼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취업률이 최 하위라는 것은 지역 대학이 다른 지방 대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인 만큼 대학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지방대의 위기는 곧 지역사회의 위 기나 다름없다. 따라서 지역 대학들은 취업률을 높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육의 질을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 권 역시 장밋빛 구호보다는 청년 취업 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취업 률을 제고시켜야 한다.

종교칼럼

나는 자비를 바라는 죄인입니다



김영철 남동 5·18기념성당 주임신부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프란치스 코 교황이 한 말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 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호르헤 마리오 베 르골리오는 누구입니까?" 호르헤 마리오 는 이름이며 베르골리오는 성입니다. 그 의 신원을 물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김영 철은 누구입니까? 신부 말고" 이렇게 물 은 것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가장 적절한 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기 좋은 말 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사제가 되기로 마음 먹었던 그 순수했던 첫 마음이 떠오릅니다. 중고 등학생 시절, 내 마음 속에서는 강렬하지 는 않았지만 막연한 무엇인가가 있었습 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남을 위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 나를 투신하 여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다가오는 어 려움이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삶을 적극적으로 받아들 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 습니다. 한편으로는 못할 것이 없을 것처 럼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신학교(가톨릭대학교) 입학시험을 치 르던 때였습니다. 마음은 긴장이 되고 성 적은 오르지 않고 '이래서 합격할 수 있을 까?' 라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이 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 당신이 저를 합격시켜 주시면 신부가 되라는 것 으로 알고 열심히 살아 신부가 될 것이고 불합격 시키신다면 신부가 되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뒤돌아보지 않고 장가 가겠 습니다.' 참으로 당돌한 태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내가 삶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떼를 쓰다시피 했던 그런 나의 바람이 거 짓말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삶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 니다. 늘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 니다. 신학생 때는 시험 치르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신학교는 정해진 성적 이 하가 나오면 짐을 싸서 집으로 가야만 했 습니다(실제로 그런 일은 많지 않았지 만). 그것을 라틴말로 '똘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명 '똘레 공포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험 때만 되면 긴장이 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시험 때만 되 면 또 그 떼쓰는 버릇이 나왔습니다. '하 느님! 당신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당신이 알아서 끝까지 저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대담함과 과감함이 하느님을 협 박하는 수준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해 한해를 지내며 조금씩 신학생의 티를 벗고 부제(사제가 되기 전 성직자) 가 되었을 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후배 한 명이 성당에서 기도 중에 쓰러졌습니 다. 부랴부랴 그 후배를 데리고 인근 병원 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빨리 오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은 사제가 되 기 위해 서약서를 쓰는 날이었던 것입니 다. 다른 부제들이 성당에 모여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담당 신부님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 다. 이유는 많은 이들을 기다리게 했고 다 른 사람이 병원에 따라가면 될 것을 하필 내가 갔어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나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너무도 서운했습니다. '사제가 되려는 것 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데 쓰러진 동료를 데리고 병 원에 간 것이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라 는 생각이 들면서 한순간 사제직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방문을 닫아걸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를 나 왔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으로 향했습니 다. 4월 초였음에도 눈이 내려서 너무도 눈부시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초라한 내 모습 을 보았습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내 마

음을 보았고 그 마음이 너무도 부끄러웠 습니다. 나는 그렇게 신학교로 돌아왔습

신부가 된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립 니다. '저하나 잘 살자고 여럿 힘들게 했 구나.'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 상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살아감을 배 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끔 이런 기도로 하느님께 떼를 쓰곤 합니다. 세상에 가난 한 사람이 왜 이리도 많고 왜 그들이 억눌 려 사느냐고, 좀 잘 살게 해 주시라고 말 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유능하 고 똑똑한 이들'이 군림하는 세상이 아니 라, 보잘 것 없고 힘없는 '작은 이들,' 특 별히 죄인이나 가난한 이들, 버림받은 이 들, 병자들,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로운 세상이 되도록 해 달라고 말입니다. 조금 씩 철이 들어가고 있나 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어린 시절 품었던 순수한 마음을, 사제의 길을 막 내딛던 그 때의 첫 마음을 되새겨봅니다. 나는 올 한 해도 하느님 자비를 입고 살았습니다. 많 은 이들이 나를 용서와 인내로 잘 참아주 었습니다. 덕분에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한 죄인으로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져봅니다. '나는 죄인 입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 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자비가 절실히 필 요한 사람입니다. 나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 고

김 윤 석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 사무총장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정 교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이다. 2007년 광 주시 경제부시장이 되면서 운명처럼 주 어진 유니버시아드와 보낸 지난 세월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사자성어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기에 가슴 설레는 도전이었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성공의 두려움이 었다.

이 두려움은 대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 커갔다. 조직위원회의 규모는 대회 한 달을 앞두고 370명에서 운영요원과 자원 봉사까지 더해 2만 명에 가깝게 늘어났 고, 대회의 흥행을 위해 수년간 공들여왔 던 남북단일팀의 무산과 북한의 불참, 대 회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찾아온 전염병 메르스는 대회를 총괄하는 책임자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가슴으로 낳은 유니버시아드

지금에 와서야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 기지만 대회를 얼마 남기지 않고 서산대 사가 머무셨던 고향 해남의 대흥사 암자 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큰 나랏일을 앞두 고 정갈한 마음으로 상서로운 기운을 받 고 오라는 후배의 특별한 배려 덕분이었 다. 주지스님은 "아마도 밤을 꼬박 새던 지 아니면 푹 주무시든 지 할 것입니다. 아침 공양에 뵙지요"라는 말을 남기고

강한 기운으로 둘러싸인 깊고 깊은 산 사의 적막 속에서도 다른 어느 날 보다도 깊은 잠을 자고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했 다. 아침 공양시간에 스님께서는 지난 밤 잘 잤느냐고 묻더니, '유니버시아드가 참 잘 되겠습니다'는 덕담을 남겼다. 보이지 않은 큰 힘을 얻었다.

유니버시아드는 호남지역에서 처음으 로 치러지는 사상최대 규모의 국제행사 였다. 미사여구는 화려하지만 이 말은 온 갖 종류의 부재와 열악함을 숨기기 위한 포장술이다. 국제대회를 치를 인재의 부 재, 재정의 부재, 경험의 부재, 네트워크 의 부재, 전략의 부재. 우리의 시작은 그 렇게 많은 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더욱 필 사적로 도끼로 바늘을 만든다는 심정으 로 참을 '인'자를 수백 번을 써가면서 준

비해왔다.

대회가 끝나고 어느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대한민국 최고의 대회, 세계가 인정 하는 새로운 모델의 대회를 치렀다는 평 가가 쏟아졌다. 진정 고백컨대, 광주시민 들에게 눈물 나게 고마웠다. 수많은 사람 들의 손이 모여야하는 종합대회는 치러 내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와 국가의 조 직적인 도움이 절대적이다. 대회를 치르 고도 본전을 찾기 힘든 것이 이벤트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런데 광주는 성공한 대회를 치렀다. 말로만 듣던 위대한 광주 시민이란 말이 메아리가 되어 가슴 깊이 파고를 일으켰다.

대회가 끝나고 5개월이 지난 요즘 다시 광주 유니버시아드가 주목받고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최고의 연말 선 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 방재정혁신 부문의 우수사례로 '광주유 니버시아드'가 선정되어 5억 원의 재정인 센티브를 광주시가 행정자치부로 교부받 는다고 한다.

또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 가 광주시의 베스트 시정에 뽑혔다는 소 식이 날아왔다. 광주시는 베스트 시책 선 정 사유로 2009년 5월 대회 개최 결정 이 후 6년여의 준비 기간 동안 신축경기장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대회'의 모범을 보

였다고 밝혔다. 광주시정의 전폭적인 지 원이 없었다면 U대회 성공은 없었을 것 이다. 조직위원회의 대회 디자인과 운용 능력을 높이 평가해준 광주시에 감사하 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보니 2009년 대회 유치에 성공했을 때도 '유대회유치성공' 이 그 해의 베스트 시책이었다. 이제 진정 한 마침표를 찍었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연합뉴스가 발표한 체육기 자가 뽑은 2015 톱뉴스 10위에 광주유니 버시아드가 2건이나 선정됐다는 사실이 다. 연합뉴스는 전국 51개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U대회 의 성공개최와 사상 첫 대한민국 종합우 승, 김국영 선수의 남자 100m 한국 신기 록 달성을 10대 뉴스로 다뤘다. 광주유니 버시아드가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에도 분명한 족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처음 유치에 나설 때만해도 먼 훗날의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광주유니버시아드 는 올해 마무리되었다. 도끼를 가는 심정 으로 준비했고 잘 마무리했다는 안도감 에 마음 편히 2015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광주유니버시아드와 함께 했던 모 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유니버시아 드 성공이 광주의 새아침을 열어줄 것으 로 믿는다.

無等鼓

올해의 말말말

해마다 연말이면 한 해 유행했던 말 이 회자되곤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 은 말들이 등장했다. 세 치 혀로 인해 뜨고 진 인물들도 많았다.

말로 인해 뜬 인물은 지난달 열린 세 계야구연맹 '프리미어 12'에서 한국팀 사령탑을 맡은 김인식 감독이다. 김 감 독은 일본과의 준결승에서 4-3으로 승 리한 뒤 "야구는 해 봐야 아는 것이고 결과는 끝나야 아는 것이다"는 말로 극 적인 역전 드라마의 짜릿함을 표현했다.

올해 최고의 히트 작인 영화 베테랑에 선 "우리가 돈이 없

가슴을 확 뚫어 줬다.

지, 가오(자존심의 속 어)가 없냐"라는 말이 화제를 낳았다. 광역수사대 경찰인 서도철 역을 맡은 황정민이 재벌 2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 는 동료 경찰관에게 한 말로 서민들의

프란치스코 교황도 올 한 해 인상적 인 말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달 아프리카를 방문한 교황은 방탄차를 타 지 않고 순방하던 중 테러 위협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걱정하는 것은 모기 뿐이다"라며 의연하게 대처했다. 6월 에는 빈곤층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 향을 주제로 한 환경회칙을 발표하면서

지구온난화가 인간 활동 때문이라고 지 적해 영국 예일대 법대가 뽑은 '2015년 인용할 만한 문구 1위'에 올랐다.

하지만 말로 인해 구설수에 오른 경 우가 더 많았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5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길 것 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진실이 야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이 사건으 로 그는 대권주자 반열에서 63일 만에

물러난 역대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 기 록을 안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

재인 대표는 2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가 안 되어도, 당을 제대로 살리 지 못해도, 총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해 도, 그 다음 제 역할은 없다. 세 번의 죽을 고비가 제 앞에 있다"고 비장하게 말했 다. 한 번의 고비는 넘었지만 현재로선 두

번의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유방을 도와 한(漢) 나라를 세운 장 량은 "세 치 혀로 명예와 지위를 얻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일이다"라고 갈파 했다.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연말이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_ _ _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